

01 교회소식

순수기독교방송의 새로운 비상~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는 GCN 방송이 참신하고 유익한 신규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7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자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

어떤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에도 발전이 더디다. 자기 한계란 어디서 오며, 어떻게 깨뜨려야 하는지 소개한다.

04 인터뷰

“와서 보니 더 좋은 만민중앙교회”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필리핀 교계 인사들의 소감과 간증을 들어본다.

만민뉴스

제605호 2013년 10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신선하고 유익합니다. 볼수록 즐겁습니다!”

GCN 방송 개편 및 신규 프로그램 인기리 방송

GCN 방송 새로운 비상
 지씨엔 방송에서 정성껏 준비한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GCN 방송 미국 송출실이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005년 10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개국해 전 세계를 커버하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방송으로 자리매김한 GCN 방송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비상을 했다. 2013년 10월 14일부터 새로운 로고와 함께 순차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GCN 방송 신규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은 신규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일부).

성결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 세계에 전하는 순수복음 방송, GCN 방송이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상을 했다. 이사장 이재록 박사의 믿음의 행함으로 세계 선교에 힘써온 GCN 방송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세 줄기 오로라 빛과 전 세계를 성결의 복음으로 덮어가는 비전을 담은 로고와 함께 시청자들을 찾아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10월 14일부터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방송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콘텐츠로 편성된 19개의 신규 프로그램은 그동안 교회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실력 있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진행을 맡아 더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GCN 방송 이사장이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박사의 설교 프로그램 '우리 삶의 등불'과 이재록 박사의 기도 내용을 담은 영상 '침을 비롯,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이수진 목사의 TV 설교', 하나님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이희진 목사의 말씀코너 '주님 생각',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손에 만진 듯 풀어주는 이희선 목사의 '영의 세계, 크리

스천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예배와 성경상의 난해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는 신동초 목사의 '생명수', 만민국제신학교 총장 정구영 목사의 'MIS 강의'는 시청자들의 영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주경 찬양선교사의 '찬양드림' 코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찬양을 배우며 호흡법과 발성법도 함께 익힐 수 있다. 이진 집사가 진행하는 '향기'에서는 만민찬양의 의미와 함께 기초적인 음악이론, 반주법을 알려 준다. 한동식·유신아 집사의 어린이 율동 프로그램 '알콩달콩 영어쁜 율동'도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기독교사 네트워크(WCDN)를 통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WCDN',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몸과 마음가짐을 배우는 '아름다운 예배', 성경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보는 프로그램 '묵상', 만민지교회 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우린 하나가 새로 편성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대형 교회 성도로서 알아야 할 기초 문법과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English'와 '1분 영어'도 있다. 또 현대인들의 신체 균형과 잘못된 몸의 습관을 바로잡아주

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과 꽃꽂이와 장식법을 초·중·고급 단계별로 지도하는 '플로리스트',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오늘의 날씨' 등 교양 프로그램이 강화됐다.

신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면서 "방송 시간에 맞춰 TV 앞에서 기다린다."는 등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수"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잘 다지고 이해와 능력을 힘입어 복된 신앙의 여정을 이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문태규), "향기"에서 음악의 전문 지식분야를 다뤄 주셔서 앞으로 저도 직접 반주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하늘소망)

GCN 방송은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섭리를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비전으로 2005년 10월 10일 개국했다. 그동안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를 비롯, 우리 교회 각종 예배를 생중계해 왔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수준 높은 기독교문화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전하고 있다. 인터넷(www.gcnetv.org) 및 모바일(m.gcnetv.org)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24시간 시청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중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순종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이처럼 죄로 인해 원수 된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골 1:20).

예수님께서 죄인 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셨지요. 우리도 가정과 일터, 교회 등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희생하고 섬겨 줄 때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깨게 됩니다. 범사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방법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으로 가로막히게 됩니다(사 59:1~2).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 보혈의 공로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

게 되지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아 강건해지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요해지는 등 가정, 직장, 사업터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게 됩니다.

2)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야 합니다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등 악이 있으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악이 발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받음으로 평안할 수가 없지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기, 질투, 교만, 다툼, 간음 등 마음에 악이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 마음이 곤고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악을 벗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나가야 합니다.

3)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므로 화평을 깨기도 합니다. 가령,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도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반대 의견이 나와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하며 그냥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열심은 기특하지만 실족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의 연약한 믿음도 고려해 화평을 좇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몇 사람이 열정으로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모두가 화평함 속에 이룬다면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만일 내 마음 안에 짜증이나 혈기, 다툼, 의견대립, 불편함이 생긴다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 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악은 모양도 없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뤄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의미하지요. 일반적으로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현격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가령, 겨우 구원받은 만한 ‘자녀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아이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청년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아비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란 아비들의 믿음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룬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랑받는 자녀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도 받아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이 외에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장차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며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17,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왕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자기 한계를 극복하자!

'한계란 '더는 넘을 수 없는 한도' 곧 '능력의 범위'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한계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1 자기 한계란 스스로 정한 것

사람들은 왜 한계를 느끼는 것일까? 이는 스스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한계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한계란 사람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말씀 무장과 함께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면 된다고 믿고 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극복하는 방법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두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자. 이때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며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지치는 모습,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또 다른 한계가 된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틈났는지 점검해 봄으로 기쁨과 감사로 극복해야 한다.

만일 부정적인 생각 곧 '할 수 없다.'는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낙심이 되니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오늘날은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턱까지 넘어지고 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죄에 물든 교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끌어내려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기도로 본을 보이신 대로 눈물의 간구와 희생으로써 그 공의를 쌓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목회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아직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 마음 안에 깊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의지하며 더 깊은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바꿔 나간다면 신속히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만일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더디다면 그것은 불같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임을 깨우쳐야 한다.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 자체가 한계가 돼 변화가 더딘 것이다.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시간 중반이나 후반쯤 되면 중언부언하고 졸음이나 잠냄 속에 빠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힘들다.' 한다면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매일 기도한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 속에 쉽사리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기도한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 불같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 불같은 기도와 더불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눅 22:44).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응답받은 과부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함이 적기 때문이다.

진정 사모한다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절함으로 변화되기 위해 불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발견하고자 기도하며 노력해 갈 때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발견케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불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매일 변화의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8/7동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파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கட만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해외 17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교단 총회장, 목회자협회장, 신학교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들을 만민뉴스 취재팀이 만나 대담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영적 대화를 나눈 후 성령충만한 예배를 드린 필리핀 목회자들(사진 1, 2). 왼쪽부터 에리베르도 까바오바오 목사, 셀소 산 호세 목사, 에피파니오 바르셀론 목사, 로버트 네리 목사, 마리오 라우렌테 목사, 마누엘 부엔수세스 목사, 마리오 로블레스 목사(사진 3).

Q 만민중앙교회에 방문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셀소 산 호세 목사(독립교단 총회장협의회 회장) 저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교회 조직이 매우 훌륭합니다. 교회 내 많은 부서의 사역을 비롯해 예능위원회의 경배와 찬양, GCN 방송과 이재록 목사의 다양한 신앙서적들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교 사역이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서클 버스를 제공하고 서점, 식당을 비롯 노인요양시설 등 편의시설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섬기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선교 마인드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특히 겸손과 섬김으로 신앙의 본이 되시니 성도님들이 당회장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동들로 성장하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습니다.

Q '2011 이재록 목사 초청 필리핀 연합대성회'는 어떤 성회였나요?

로버트 네리 목사(까비떼주 기독교목회자협회 총회장) 이 성회는 2011년 9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됐습니다. 필리핀에서 9월은 태풍이 오는 시기이므로 현지 목회자들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회 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공적인 성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지요. 태풍이 비껴가고 성회 기간 비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달을 두른 원형무지개까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 단 위에서 해 주시는 기도로 무수한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그때 수많은 목회자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놀라웠고, 이재록 목사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 후 성회를 도왔던 교회들이 부흥했고, 성결의 복음은 필리핀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Q 총장님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마리오 로블레스 목사(필리핀선교신학교 총장) 만민중앙교회 방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뵈고 축복기도를 받은 것이지요. 대교회 당회장이지만 매우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

저희를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섬김으로 정성껏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의 선한 행함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회장님께서 본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시는 진실한 설교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 총장으로서 성결의 복음을 교수님들에게 먼저 전한 뒤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더불어 PMF(필리핀 미션너리 펠로우십) 교단의 부총회장으로서 교단에도 전하길 희망합니다.

Q 권능의 무안단물을 통해 치료받으셨다고요?

마리오 라우렌테 목사(GMA지역 독립교단 총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기도해 주셨는데도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안단물이 담긴 수족관에서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생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2011년, 한 달간 목 안에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당시에도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무안단물을 마신 후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지요. 이번에는 무안단물에 침수할 때 갑자기 등과 어깨 부위가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그 부위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Q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들을 읽어보셨나요?

마누엘 부엔수세스 목사(마닐라 파사지역 목회자협회장) 저는 『민음의 분량』과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을 읽었습니다. 그중 『민음의 분량』은 아주 감명 깊었지요. 이 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믿음이 성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저서를 통해 온전한 주일성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 등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밝히 알게 됐지요. 보석 같은 말씀들이 가득 담긴 이 목사의 신앙서적을 저는 주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Q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하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에피파니오 바르셀론 목사(까비떼주 다스마리나시 목회자협회장) 매일 밤 9시에 다니엘절야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기도회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남녀노소 모두 모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등은 참으로 인상 깊었지요. 저는 기도하던 중 성령의 기쁨 부음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지요. 저희 교회도 기도회 시간을 늘려 더 많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Q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축하 공연은 어떠셨는지요?

에리베르도 까바오바오 목사(필리핀선교협회 총회장) 다양한 예능팀들의 단합과 질서, 젊은이들의 주님께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소품 등 일반 방송보다 더 훌륭하고 작품들이 프로페셔널 했지요. 시간과 물질, 정성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런 멋진 공연을 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소망하는 천국을 잘 표현해 주었고, 천국의 아름다움과 깨끗하고 화려함을 보면서 천국은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실감했지요. 이를 통해 '더욱 거룩한 삶을 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0.27-11.2

10 October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의 결여 1-5 • 천국 39-43 • 성결(임직예배) • 성령의 9가지 열매 6-9 • 십자가의 도 14-18 • 공부 잘하는 비결 6-10 • NEW 우리삶의 등불 1 	GCN TV설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결을 위한 자서 1 (이우진 목사) • NEW 영의 세계 2 (이희선 목사) • 희생 (이미영 목사) • NEW 생명수 3 (신동초 목사) • 나의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병태 교육연구소)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4 (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 • 찬양 드려요 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 • 향기 3 • 우리 하나 1 • 플로리스트 3 • English 2 • 아름다운 예배 3 • 창립 31주년 축하공연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연합대성회 3 • 이스라엘연합성회 종합편 <p>GCN 방송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p>
--	---	--	--